

養鷄業界의 앞으로의

협력 경영하는 양계가 되어야 한다

오 세 정

<건국대학교 축산대학교수>

양계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불황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앞으로 다칠 사료값의 앙등과 물량 수급의 불균형 그리고 품질의 저하가 예상되고 나아가서는 경기 불황과 사회불안에서 오는 소비의 급격한 감퇴로 가격의 폭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인한 양계산업은 위축과 불경기가 장기화될 전망이 짙어지며 경영형태와 사양방법의 변화와 전환기가 오지 않았나 기우가 된다.

현재 계란값의 폭락 원인은 소비 감퇴에서 온 것이다

급년봄 이후 난가는 계속 좋은 편이었으나 추석(秋夕)을 계기로 급격히 폭락되고 있는 것은 소비의 감퇴에서 오는 것으로 그의 이유를 들면,

① 식량부족의 공포분위기속에서 쌀값의 상

승으로 식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② 연탄의 파동과 가격상승으로 월동대책을 위하여 매점 매석에 급급하고 생활비의 긴축에서 오는 소비위축

③ 계절적으로 오는 소비의 감퇴영향

④ 농촌 부업양계에서 생산되는 계란수의 출하증대

⑤ 수출업계를 비롯한 경제계의 침퇴와 감원에서 오는 경기불황

⑥ 모든 물가의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의 과중으로 소비위축을 가져온다.

⑦ 학생들의 데모로 인한 사회불안

⑧ 추석때 지나친 가격의 급등으로 소비의 위축

⑨ 유통의 문제점, 즉 생산자는 17원으로 폭락되어 출하하는데 소비자는 종전의 가격으로 여전히 30원씩 사먹게 된다는 점

⑩ 기업체의 전반적인 불경기로 인한 긴축

當面 問題點 과 나 아 같 길

오세정 · 원용택 · 설동섭 · 최민용

재정과 생활의 감소화

이상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급격한 소비의 감퇴를 가져왔으며 이에 반하여 생산량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노계(老鷄)와 과산계를 빨리 도태하여 도살 처분함으로써 수를 감소시키자

이와같은 원인과 전망으로 보아서 이대로 지속한다면 그 어느때보다도 불황이 장기화되고 도산하는 업자가 속출될 가망성이 많으니 닭값의 고저를 불구하고 노계와 과산계를 과감히 도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육계값의 전망은 아주 불안하다

현재 육계값이 일시적이거나 유지되고 있는 것은 홍콩에 삼계탕 통조림으로 50萬수 수출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에 10톤의 정육이 수출되고 있어 생산원가의 하회를 막고 있으나 만일 이것이 없었던들 1kg당 200원 이하로 하

락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국내 소비 추세는 작년말과 금년 초보다도 더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다.

현재는 수출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만일에 수출에 차질이나 중지를 가져온다고 하면 급격한 폭락시세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부로일러 사육업자는 이점을 예의 주시하고 무모한 입추를 하지 말고 계약생산 체제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1%의 수급상의 불균형은 가격면에서 7% 내외의 시세를 좌우한다

다른 물건과 같이 저장성이나 가공시설이 없어 부로일러는 특히 수급상의 차질로 가격면서 큰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이번에 노계와 과산계를 약 200萬수 정도 도살하면 현 수급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며, 부로일러도 입추를 조절하면 적자요인은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누가 하여주겠지! 하는 바람과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출선하여 일선장병에게 무료로 선사하던가 불우한 양노원이나 고아

원에 회사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어떠한 방법이던지 우리 스스로가 협력하여 자
진해서 수급조절과 감축이 있어야 한다.

부화업자는 약 3개월간 입 란을 중지하자

계란과 닭고기의 소비위축과 앞으로의 사료
값이 20% 내외가 상승될 것에 대비하여 부화
업자는 스스로의 가격을 유지하고 양계업의
안정을 위하여 과감히 입란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대로 계속 생산된다고 하면 부화업자는
거의 자멸할 것이고 사육업자도 계속불황을
면키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네신 돈을 버는 사람은 사료공장뿐이며 또
한 많은 외화를 버리게하는 결과가 된다.

현재 부화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약 300여
개소의 부화장 중에서 약 50개소가 겨우 가동
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전체생산량의 70~80%
는 3~4개업체 부화장에서 독점 생산 공급되
고 있다.

이것을 볼 때 앞으로 부화업계의 판도가 어
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 하
겠다. 즉 이대로 방임한다면 사료공장을 가지
고 부화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만이 남고 남
어지는 거의 도산될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어찌할 도
리가 없는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나 사육자들
의 보호와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곧
부화업자가 단결하여 약 3개월간만 입란 중
지를 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싶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현재 식량의 부족과 사료도
입으로 인한 외화 유출, 자원 부족등 허다한 문제
점을 안고 있는 이때 더욱 입란의 중지가 소망스럽
고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사육업자는 입추를 중단하자

사육업자가 과거보다 많은 경험과 자각에서
스스로 입추를 조절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
이다. 내년에 경제전망과 소비 전망으로 보아
서 암담한 일이나 혹시나 또는 시설을 늘리기

가 가까워서 사육하는 일이 없이 과감히 입추
(入雛)를 중지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하
는 일이 될 것이니 종래 수수의 반수는 더 축
소하고 알찬 경영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계현황은 사육농가의 98% 이
상이 100수 이하의 사육농가이고 1%가 3,000
수 이상의 전업 양계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육수수는 1%의 사육농가에서 사육되는 수
수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100수 이하의 부업사육농가에서는 어떠한
파동이 오더라도 큰 문제가 아닌데 가장 어
려움을 당하는 것은 전업양계가일 것이다.

그러니 생산의 조절은 전업양계가에서 수지를
맞추는 양계를 하기 위하여 스스로 입추수를 줄이
고 규모의 축소만이 앞으로 살길이라고 본다.

종계확인의 철저와 부화장 의 정비

양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축산업의
기본법인 축산법의 개정이 바람직한 일이나
그러나 아쉬운대로 현행법의 범위내에서 시행
령을 개정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의 시행령의 개정은 종계의 확인과 부
화장의 등록인데 이것은 범범위내에서 보다도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不良雛의 생산을
억제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부화업자
나 양축가는 스스로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여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고 경제성과 장래를
위하여 협력과 자각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종계의 확인 등록이 되지 않은 닭
에서 생산되는 수정란으로 부화를 하지말 것
이며 이러한 병아리는 경제성이 대체로 없는
것이니 사육자도 잘 알고 구입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농가 부업양계 또는 취미 양계에서 소위 왕
병아리를 많이 키우는데 왕병아리라 하더라도
혈통이 정확한 종계에서 생산된 것이 사육목
적의 경제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한번 알고 깨
달아 무질서한 교잡에서 생산된 유색의 왕병
아리를 부화하지 말 것이며 또한 이러한 병아

리를 키우지도 맡아줄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사료값이 곧 15% 이상 상승된다

현재 쓰고 있는 옥수수는 톤당 150불대인데 비하여 12월말 내지 1월부터는 180불대 것을 쓰지 않으면 아니되고 또한 국내 원료가격의 상승을 합한다면 거의 20% 내외까지 상승되지 않으면 현재의 품질을 유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생산비의 과중과 생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양계업계는 그 어느때 보다도 큰 불황을 맞이하지 않으면 아니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대처하는 기술의 고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 사육수수를 줄이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바라건대 하루속히 입란의 중지, 입추사육의 중단과 현재 사육되고 있는 닭의 과감한 도태가 시급한 해결의 당면 문제라고 본다.

예고없이 사료의 품질을 떨어뜨려서는 아니된다

양계업자의 입장에서 가격은 올려도 사료의 질저하 또는 급변을 가져와서는 아니된다.

사양관리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하는데 질이 좋은 것을 먹이다 갑자기 사료의 질을 떨어뜨리면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사료원료값의 상승으로 값을 맞추기 위하여 질의 조절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데 이는 가격의 통제가 해제된 오늘날 사료공장에서는 품질의 저하는 가져오지 말아주기 바란다.

물량을 제한하는 사료공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도입될 사료의 원료값의 상승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을 지연하여 사용코저 조절하려는 과거의 실정을 보았다.

장사이니만큼 있을 수 있는 일이겠으나 양

계 업자가 잘되고 돈을 벌어야 사료공장도 발전될 수 있는 일이니 과거와 같은 비양심적인 사료공장이 없기를 바라며 양계업자는 이를 주시 경계하며 그러한 업자가 있다면 양계인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견제하여야 한다.

사료의 품질 비교 사양시험을 실현하여야 한다

현재 사료검사제도는 큰 의의가 없어졌다고 본다. 사양시험을 통한 사료효율 시험과 경제성의 검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더우기 국내 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재고되고 있는 이때 몇가지 조성분만을 검사하고 이를 맞추는 것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일이며 연중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사료의 사양시험을 실시하여 공개함으로써 양축가에게 사료 선택의 지침을 주고 또한 사료공장에서는 영양학적인 연구와 경제적인 사료의 생산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료검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바란다.

사료자원의 개발과 이용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 도입되는 사료만 가지고 배합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국내 자원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한 방법으로 도입사료에 몇 %를 가산하여 자원의 개발과 활용성 증진을 위한 연구와 보호책에 쓰는 과감한 시책이 아쉽다.

사료물량 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도입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현단계에 와서 사료의 물량을 제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격의 고하간에 물량의 차질은 가져와서는 아니된다.

비용을 먹기위하여 사슴을 들여오고 사슴

동물원을 만들어 정서하기 위하여 사자를 들여오며, 꼬추값이 비싸다고 중공에서 꼬추를 들여오는 이 마당에 130萬 양축농가의 생업에 관련되고 국민의 체위를 향상시키고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계란과 육류공급이 절대적인 요건인데 사료를 제한하여 축산업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사료원료의 보세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매우 필요하였으나 현대에서는 세금을 물고 사료공장만이 아니라 양축가도 원료를 구입하여 자유로히 쓸 수 있게끔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사료공장만 독점 유리하고 또한 사료공장을 가진 기업양축가에만 유리한 경영이 되니 차라리 보세제도를 폐지하고 세금을 부과시켜 그 돈으로 사료의 자급화추구와 생산물의 가격유지 및 안정기금으로 활용하며 처

장과 유통개선등 적정가격을 보장하여주는 제도가 아쉽다.

양계는 협력 경영하는 양계가 되어야 한다

수지를 맞추는 양계, 즉 소비에 맞추어 생산하며, 경제적인 사료를 먹이며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물의 유리한 판매를 기할 수 있는 수급조절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즉 생산자의 협력으로 강력한 조직에 의하여 수급조절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으며 불굴의 정신과 창의와 창조적인 정신을 가지고 항상 배우고 연구하여 실천하는 건전한 양계업이 되길 기원하면서 아무쪼록 이 불황을 당하여 하루속히 회복 발전되길 재삼 기원하는바이다

계란가격이 폭락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으로 겪는 얘기는 아니다. 항상 있던 일이다. 그러나 왜 이번 경우에는 유독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양계산업발전의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일까?

극심한 불황을 이루는 국내의 경기의 높은 파도를 우리 축산업 특히 양계업계가 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렇게 악천후를 만날때 마다 포류를 해야 한다면 언제나 축산다운 축산이라고 불리워 질 수 있을지 정히 의심스러운바이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있다. 그리고 그문제점들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아는것만이 힘이 아니라고 했다. 실천하는것이 힘이라고 한다.

이제 때는 온것같다. 하나의 핵을 이루어 스스로를 지킬수있는 지혜를 짜내고 타분야에 우리를 주장할수있는 그 무엇을 만들기회가 온것 같다.

만일 이것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문제 즉 양계산업의 존재에 대한 얘기가 서슴없이 나오더라도 이를 실득시킬수 있는 저변의 힘을 기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 힘을 기를수 있도록 하나의 핵을 만들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다시한번 당면 문제점들을 파헤쳐보고 앞으로의 이정표를 선명히 하고자 이번 특집에는 「양계업의 당면 문제점과 앞으로의 나아갈길」이라는 [항상있는 그러나 가장 절실한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편집자 주>